

가족구조, 부모와의 의사소통, 학업문제와 친구관계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Family Structure, Parental Communication, Academic Problems, and Peer Relationship on Juvenile Delinquency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 최규련

Department of Child & Family Welfare, The University of Suwon
Professor : Kyu Reon Choi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s of family structure(parental marital status and socioeconomic status), parental communication, academic problems, and peer relationship on juvenile delinquency. The participants were 1009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city and Gyeonggi Province.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1) Parental marital status(divorced/seperated) had both direct and indirect positive effects and lower class in socioeconomic status had an indirect positive effect on academic problems and peer relationship on juvenile delinquency rates. 2) Open maternal communication had a direct negative effect on juvenile delinquency rates. However, open paternal communication had both direct and indirect negative effects. 3) Academic problems had both direct and indirect positive effects on juvenile delinquency rates. 4) Peer relationship had a direct positive effect on juvenile delinquency rates. 5) The level of effects that each variable had differed by delinquency types.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for preventing juvenile delinquency were discussed.

주제어(Key Words) : 가족구조(family structure), 부모와의 의사소통(parental communication), 학업문제(academic problems), 친구관계(peer relationship), 청소년 비행(juvenile delinquency)

I. 서론

오늘날 청소년 비행의 정도는 해마다 심각성을 더해가며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저연령화, 성범죄의 급증, 집단화, 흉포화, 재범증가 경향을 띠고 있다(이동원, 2001). 청소년기의 비행은 당사자의 적응문제를 야기시킬 뿐 아니라 가족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성인기 범죄와 연결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

최근 학교폭력의 증가로 청소년 비행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요인이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어왔다(고정자, 2005; 김경식, 이현철, 2006; 김준호, 이동원, 1996; 남현미, 옥선화, 2001; 신혜설, 2005; 오승환, 2006; 유안진, 이점숙, 서주현, 2005; 이동원, 2005; Demuth & Brown, 2004).

청소년 비행은 청소년이라는 특성상 범죄행위만이 아닌 무단결석, 가출, 음주, 흡연, 유흥장 출입, 성행동, 학교폭력 등의 부적응 행동이나 청소년의 지위에 맞지않는 금지된 행동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김준호, 1995). 청소년비행의 하위영역인 비행유형 구분은 연구자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지위비행(흡연, 음주, 유흥장 출입, 유흥장 출입), 성비행(불량만화, 서적, 음란물 시청 이성과의 성관계 경험), 도피비행(무단결석, 가출, 무단외박 경험), 폭력비행(타인구타, 타인협박, 금품갈취, 폭력, 패싸움 등), 약물비행(마약사용, 환각제사용, 대마초 사용, 알코올 남용), 재산비행(절도, 강도, 재산손손) 등으로 분류된다(김준호, 김순형, 1995; 김준호, 이동원, 1996; 유안진 외, 2005; 이동원, 2005). 청소년의 전체 비행을 연구하는 것은 비행전반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필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비행유형별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비행유형별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 연구들은 전체 비행의 유발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많고, 비행유형별 유발요인 연구는 적어서 전체비행과 아울러 비행유형별 유발요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이 아닌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관계로 발생빈도가 적은 약물비행이나 재산비행을 제외한 지위비행, 성비행, 도피비행, 폭력비행의 네 가지 비행유형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아울러 전체 비행을 고찰하고자 한다.

서구에서는 청소년 비행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으로 아노미이론, 사회유대이론, 차별적 접촉이론 등이 제시되었다. 이들 이론은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가족, 학업 및 학교, 친구 요인 등을 포괄하고 있어서 이론검증을 통한 청소년 비행 파악에 유용한 기초를 제공한다. 그런데 기존 선행연구들은 몇 가지 연구를 제외하고는 이들 이론

을 검증하거나 이 요인들을 포괄하는 연구가 부족하여 비행 유발요인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최근 급변하는 사회에서 가정불화와 부부갈등 증가로 별거나 이혼 등의 가족해체가 급증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부족으로 인한 부모의 기능이 약화되는 추세로 볼 때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하는 가족과 가정경제수준 등의 가족구조 요인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요인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관련 선행연구들은 한 부모 가족을 일반 가족과 비교하는데 그치고 이혼가족과 별거가족을 별도로 분석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더욱이 가족유형의 영향을 연구하면서 가정경제수준, 부모와의 의사소통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기존연구결과들이 불일치되어 가족해체와 가정경제수준 등의 가족구조 요인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요인의 청소년 비행에 대한 영향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선행연구들에서 청소년의 부모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학업성적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오승환, 2006), 비행친구들과의 접촉(김경식, 이현철, 2006; Collins, Maccoby, Steinberg, Hertherington, & Bornstein, 2000)과 비행에 부적 영향을 미치며(고정자, 2005; 고계옥, 2009; 김경식, 이현철, 2006; 김수진, 2001), 성별, 학교계열 등의 인구학적 변인들이 부모와의 의사소통, 학업문제, 친구관계, 비행 등과 관련된다는 보고가(고정자, 2005; 남현미, 옥선화, 2001) 있어서 다른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족구조,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학업문제, 친구관계, 인구학적 변인들을 포함한 제 변인들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모두를 포함하지 않고 한 집단만을 연구하거나 표본수가 적어 일반화에 제한이 있어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망라한 많은 표본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대표적 이론의 비행에 대한 설명력을 비교검토하고 관련 변인간의 경로 분석과 인과효과를 제시하는 결과가 매우 적어서 비행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제한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인구학적 변인(성별, 학년, 학교 계열), 가족구조(이혼, 별거가정/ 일반가정, 경제수준), 청소년의 부모와의 의사소통정도, 학업문제, 친구관계 변인들을 중심으로 비행유형별 및 전체 비행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하고 비행에 대한 경로와 인과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로써 청소년비행 예방 및 개입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청소년비행에 관한 이론

청소년비행과에 관한 연구나 이론은 대부분 청소년비행의 원인을 찾기 위하여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적용된 대표적인 이론으로 아노미 이론(또는 긴장이론), 사회유대이론, 차별접촉이론 및 사회학습이론이 있다(김준호 외, 2009, pp. 86-122).

아노미이론(anomie theory)은 사회에서 강조되는 목표와 괴리되는 것이 청소년에게 긴장(strain)으로 작용하여 비행행동을 유발한다는 것으로 낮은 학업성적, 낮은 경제수준, 가족해체로 인한 박탈감이나 기회의 제한 등이 그 사회에서 청소년을 밖으로 몰아내는 압력(push)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사회유대이론(social bonding theory)은 사회통제이론이라고도 하며 유대가 끊어지고 통제가 약해졌을 때 청소년 비행이 발생하고 청소년의 부모와의 애착,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의 지도감독이 충분할 때 비행이 억제된다고 본다. 차별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과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은 비행문화와의 접촉 또는 비행학습이라는 측면에서 친구관계가 유인(pull)요인이 된다는 것으로, 전자의 이론에서는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통하여 비행을 합리화하고 동기를 유발하는 가치관을 학습하는 결과 비행이 발생하며, 후자의 이론에서는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통하여 비행가치를 학습하고 비행친구의 행동을 관찰하며 비행행동을 배운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이론을 토대로 압력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모의 결혼상태(이혼 및 별거여부), 가정경제수준 등의 가족구조변인과 학업문제, 통제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그리고 유인요인으로 작용하는 친구관계를 중심으로 비행에 대한 영향을 고찰하기로 한다.

1) 가족구조의 청소년비행에 대한 영향

가족유형에서 부자가정이나 모자가정의 청소년들이 일반 가정 청소년에 비해 폭력행동을 포함한 비행의 발생이 높다는 결과가 많으나(고정자, 2003; 김영희, 김운주, 박경옥, 이희숙, 2000; 김준호, 김은경, 1995; 신혜섭, 2005; 유안진 외, 2005; 정문자, 송성자, 2001; 최규련, 1996; Paschall, Ennett, & Flewelling, 1996), 가족유형이 간접적인 영향만 미친다는 결과(김준호, 1999; 이삼연, 2002; Rankin & Wells, 1995)도 있어 불일치한다. 한 부모 가족에서 청소년비행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정서적·경제적 결핍, 역할모델 부재, 환경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역할변화, 낙인 등이 지적된다(Amato, 1993; Hetherington & Stanley-Hagan, 1999).

가족유형이 한 부모 가족이라 해도 한쪽 부모를 사별한

경우보다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경우에 자녀에게 따로 사는 부모의 존재가 작용하고, 이혼하거나 별거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기 쉽다(김준호 외, 2009, p. 151). 그에 따라 이혼가족이나 별거가족에서 생활수준, 자녀감독, 적응유연성, 자녀의 부모애착 요인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자녀학대가 발생할 수 있어서 사별한 가족보다 청소년 자녀의 폭력비행, 지위비행, 성적비행 등이 증가한다고 한다(유안진 외, 2005; Farrington, 1996). 한편 이혼가족과 일반가족에서 중학생자녀의 비행성향이 차이가 없다는 보고가 있어(이삼연, 2002) 더 연구가 필요하다.

가족구조 중 가정경제수준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가정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비행행동이 증가하고(고정자, 2003; 오승환, 2006), 특히 딸의 경우 가정경제수준이 비행 특히 성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보고된다(김준호, 김은경, 1995; 신혜섭, 2005). 반면 가정경제수준이 중학생 청소년의 비행과 관련이 없다는 보고도(이동원, 2005) 있어서 더 연구가 필요하다.

가족유형과 가정경제수준의 비행에 대한 영향력을 함께 분석한 연구결과는 일관성있게 나타나지 않아서 한 부모 가족 여부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정경제수준은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는(김경식, 이현철, 2006; 신혜섭, 2005; 오승환, 2006; 이삼연, 2002; Rankin & Wells, 1995) 반면 두 변인 모두 비행행동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다(오승환, 2000, 2006; 유안진 외, 2005; 이에계, 2000; 홍순혜, 2004; Demuth et al., 2004). 이로써 한 부모 가족 중 이혼 및 별거가족의 영향과 가정경제수준의 영향을 함께 분석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 학업문제의 비행에 대한 영향

아노미이론에서 또 하나의 압력요인인 학업문제의 비행에 대한 영향력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경우 거의 모든 유형의 비행이 증가하였다(강상진, 전민정, 장지현, 2005; 김준호, 노성호, 1989; 김준호 외, 2009; 노성호, 2005; 유순화, 2003; 이동원, 2005). 즉, 공부에 흥미가 적을수록, 공부에 어려움을 겪을수록 금지된 행동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어 중학생의 지위비행과 고등학생의 지위비행, 폭력비행, 재산비행 등 모든 비행이 증가하여 아노미이론이 지지된다(김준호 외, 2009, p. 197). 또한 학업성적은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통하여 비행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는데 학교성적이 낮은 청소년들은 학교생활 실패감과 좌절감, 소외감, 낮은 자존감, 학교에 대한 불만 등을 경험하면서 이에 동조하는 비행친구와의 접촉으로 이어져 비행이 증가된다고 한다(이성식, 전신현, 2009). 그리고 청소년의 학업성적과 학업스트레스는 가족해체, 경

제적 특성, 부모와의 관계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김경식, 이현철, 2006; 오승환, 2006) 학업문제의 청소년 비행에 대한 영향을 연구하는데 직접적인 영향 외에 친구 관계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과 가족구조, 부모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제기된다.

3)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비행에 대한 영향

사회유대이론의 통제요인으로서 부모와의 의사소통 변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적거나 부정적일 때 청소년의 비행이 증가한다고 하여(고정자, 2005; 고계옥, 2009; 김경식, 이현철, 2006; 김수진, 2001; 김윤희, 1989; 김준호, 김순형, 1995; 민하영, 1992; 박영신, 김의철, 2004; 유순화, 2003; 최규련, 1996) 사회유대이론이 지지된다. 비행유형에 대한 효과에서는 청소년의 약물사용, 이성교와박, 가출, 법률저촉 등이 부모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에 의해 감소되고, 이들 비행유형 외에 폭력비행, 재산비행 등이 부모와의 부정적 의사소통에 의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김수진, 2001).

부모 및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이도 보고되어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거나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에 아들의 비행이 증가하고(김경화, 1989; 민하영, 1992; 최규련, 1998), 어머니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남녀 청소년의 비행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방희정, 조아미, 2002).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영향을 경로분석한 연구에서는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비행에 직접적 영향은 없고, 친구지향성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비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친구지향성을 통한 간접적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비행에 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남현미, 옥선화, 2001).

한편 청소년 자녀의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성별, 학년, 연령, 학교계열 등에 따라 차이를 보여서 여자청소년이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더 잘 하고(고선주 외, 2004; 김수진, 2001), 아버지보다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많으며(김수진, 2001; 이영숙, 김정옥, 2002; 조미숙, 오선주, 1999), 고등학생이나, 연령이 많은 경우, 고학년일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감소하고(고선주 외, 2004; 박영신, 김의철, 2004; 정진경, 오경자, 문경주, 조아라, 2005), 전문계고등학생이 일반계보다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적었다(이경남, 하연미, 2004). 그러므로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비행에 대한 효과를 연구 시 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하여 영향력을 고찰하고, 아울러 학업, 친구요인 등을 통한 간접적인 효과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

4) 친구관계의 비행에 대한 영향

차별접촉이론, 사회학습이론의 유인요인으로서 친구관계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외국의 연구들은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청소년의 비행가치와 행동 학습에 영향을 주어 비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Elliott & Menard, 1996, 김준호 외, 2009, p. 216 재인용).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는 일반계, 전문계 고등학생의 친구에 대한 친밀도 및 지향성이 높을수록 친구집단의 성향에 따라 비행행동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와(남현미, 옥선화, 2001; 이경남, 2003), 청소년의 친구관계가 중학생과 일반계 고등학생의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상반된 결과(이경남, 2002)가 있어 더 연구가 필요하다.

가족요인과 연관시킨 연구에서는 가족유대가 낮은 청소년들이 낮은 학업성적으로 소외되거나 불만을 갖는 비슷한 친구들을 사귀게 되는 결과 비행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김경식, 이현철, 2006; 노성호, 2005; 박영신, 김의철, 2004; 정수경, 2000) 사회유대이론과 차별접촉이론이 함께 지지되었고 가족유대를 통제한 상황에서도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비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비행친구의 직접적 효과가 보고되었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중학생의 경우 가족위험이 높은 집단에서 친구들의 높은 지지가 비행을 증가시키는데 반해 가족위험이 낮은 집단에서 친구들의 높은 지지는 비행을 감소시킨다는 보고가 있다(어유경, 2005).

사회유대이론과 차별접촉이론을 통합하여 연령대별로 분석한 외국의 연구결과는 청소년 초기에는 부모와의 유대가 비행발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나 중기, 후기에 이룰수록 부모의 영향은 작아지고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비행에 더 크게 작용하였다(Thornberry & Krohn, 1997, 김준호 외, 2009, p. 218 재인용). 그러나 한 연구(이성식, 2002)에서는 청소년기 초기에만 비행친구의 영향력이 나타나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또 비행유형별 친구요인의 영향을 파악한 결과 사회유대이론은 지위비행 같은 경 비행의 발생을 설명하는데 적합하고, 차별접촉이론이나 사회학습이론은 심각한 비행을 설명하는데 적합하다는 보고도 있다(이성식, 1999).

이로써 친구관계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 비행은 물론 비행유형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고, 또 부모와의 의사소통, 청소년의 성별, 학년(연령), 학교계열과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제기된다.

5) 인구학적 변인의 비행에 대한 영향

대체로 성별, 연령(학년), 학교계열 등이 관련변인으로 보고된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비행경험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며(고정자, 2003; 김희화, 김경연, 2000; 남현미, 옥선화, 2001; 안병주, 2002; 오승환, 2006; 유성경, 이소래, 2001; 유순화, 2003; 이경남, 2002; 이경남, 하연미,

2004; 이동원, 2005; 정진경 외, 2005), 이에 관한 설명으로 성별 사회화, 사회통제, 생활환경의 차이가 거론된다. 즉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이 성별로 차이나는 결과 남자청소년들은 자신의 남성다움을 과시하고 인정받기 위하여 일탈을 저지르는 반면 여자청소년들은 비행을 억제하게 되고, 부모에 대한 적대감이 비행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정익중, 2005; 신혜섭, 2005). 또한 여자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통제로 행동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더 많고, 남자청소년은 여자청소년보다 생활환경이 더 넓고 심리적 갈등을 외부로 표출하기 때문에 공격형 비행이나 반사회적 행동(곽금주, 문은영, 1993; 손인영, 2007), 사회질서 비행, 성비행, 재산비행 등이 증가한다고 한다(유안진 외, 2005).

청소년의 연령과 비행과의 관련성을 보면 외국의 연구에서 연령이 증가하면서 무단결석, 약물사용 등의 비행이 많아졌으나 약물사용의 경우는 차이가 작아지고 있다(Edelbrock, 1989).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학년이 높을수록,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경우 비행행동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대부분인데(곽금주, 문은영, 1993; 김현숙, 1998; 이경남, 2002; 이은아, 정혜정, 2000), 그 이유로 고등학생의 연령이 많다는 점과 아울러 학업성취에 대한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중학생에 비해 높음에 따라 금지된 유흥장출입이나 음주, 흡연 등의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폭력 및 지위비행에서만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다는 보고도 있다(유안진 외, 2005). 또한 연령증가에 따른 비행발생의 성별 차이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남학생의 경우에는 모든 비행유형이 증가하고, 여학생의 경우는 성비행이 증가한다는 결과도 있다(신혜섭, 2005).

학교계열별로는 일반계 고등학생보다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모든 비행유형의 경험이 증가하여 전문계 고등학생이 예방개입이 필요한 위험집단으로 나타났다(김수진, 2001; 신혜섭, 2005; 유성경, 이소래, 송수민, 2000; 이경남, 2003; 이경남, 하연미, 2004). 특히 전문계 학생 중에서도 남학생들의 약물비행 경험(신혜섭, 2005)과 여학생들의 인터넷 비행이 많았다(이경남, 하연미, 2004).

이상의 선행연구결과 결과 단일한 이론이나 변인보다는 여러 이론과 요인의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하여 청소년비행 요인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제기된다. 관련 선행연구로는 고등학생 2,000여명을 대상으로 인구학적 특성(성별, 학교계열), 가족의 구조적 환경(부모직업, 부모수입, 부모학력), 가족의 심리적 환경(부모의 감독, 부모와의 애착), 학업성적요인, 친구관계(비행적 접촉, 비행적 유대)요인들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중 회귀분석한 결과 비행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학생, 전문계 고등학생, 부모와의 애착, 친구관계이고 가족구조, 학업성적, 부모의 감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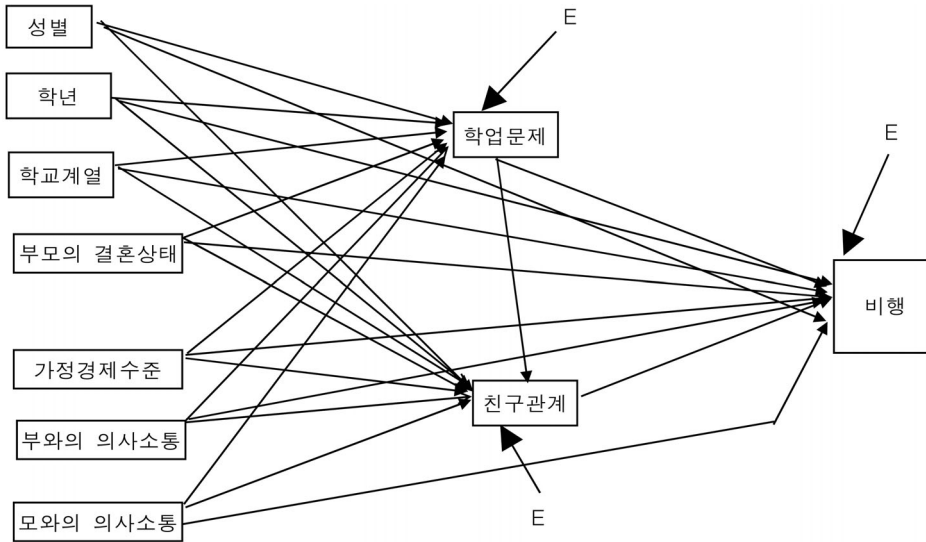
은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이동원, 2001). 그러나 이 연구는 가족유형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을 포함하지 않은 제한점이 있다.

또 다른 연구로 교내징계와 경찰조사를 받은 고등학교 남학생 10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 한 부모 가족이나 맞벌이가족의 경우,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단절된 경우,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도가 낮은 경우, 학교애착이 적을수록, 학업적응도나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친구와의 애착이 높거나 친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친구와의 접촉강도가 높을수록 비행성향이 높게 나타났다(고제욱, 2009). 그러나 이 연구는 한 지역 고등학교 남학생에 대한 질적 접근을 하였고, 인과관계나 영향력을 분석하지 않은 제한점이 있다.

중학생 3,100여명을 대상으로 개인, 학교, 가정, 비행친구 등의 비행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김경식, 이현철, 2005) 비행친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개인변인(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 학교변인(학업성적, 교사와의 관계), 가정변인(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등이 직접 영향을 미쳤으며,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학업성적에 정적 영향을 주고 비행교우에는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가족유형을 포함하지 않았고 중학생만 대상으로 하여 제한점으로 작용한다.

일반계 고등학생과 쉽터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애착, 학업성적, 친구관계가 지위비행을 예측하는 비율을 판별 분석한 유순화(2003)는 친구관계의 예측률이 가장 크고, 모든 변인을 통합한 모델의 예측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중학생과 전문계 고등학생을 제외시켰고, 가족유형, 가정경제수준, 성별에 대한 분석이나 지위비행 외의 다른 비행유형을 연구하지 않은 제한점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필요성을 토대로 청소년비행의 요인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성별, 학년, 학교계열 등의 인구학적 변인, 부모의 결혼상태(이혼, 별거/결혼유지), 가정경제수준 등의 가족구조변인, 그리고 부모와의 의사소통, 학업문제, 친구관계 등의 제 변인들이 청소년의 비행유형과 전체비행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 변인들의 비행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 영향과 변인들 간의 경로모형을 첫째, 인구학적 변인(성별, 학년, 학교계열), 가족구조(부모의 결혼상태, 가정경제수준), 부모와의 의사소통 등의 변인들이 청소년의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한 학업문제, 친구관계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도 미친다. 둘째, 학업문제, 친구관계는 청소년 비행에 각각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선행연구(이성식, 전신현, 2009)에서 보고된 학업문제의 친구관계를 통한 비행에 대한 간접효과가 본 연구에서도 나타나는 지를 검증



〈그림 1〉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관련변인의 가설적 인과모형

하기 위해 학업문제가 친구관계를 통한 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정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그림 1〉의 가설적 인과모형을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1 : 청소년의 인구학적 변인(성별, 학년, 학교계열), 가족구조(부모의 결혼상태, 가정경제수준), 부모와의 의사소통, 학업문제, 친구관계, 청소년의 비행 간의 상호 관련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 청소년의 인구학적 변인(성별, 학년, 학교계열), 가족구조(부모의 결혼상태, 가정경제수준), 부모와의 의사소통, 학업문제, 친구관계 등의 제 변인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 청소년의 인구학적 변인(성별, 학년, 학교계열), 가족구조(부모의 결혼상태, 가정경제수준), 부모와의 의사소통, 학업문제, 친구관계 변인의 청소년 비행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 영향력과 인과효과는 어떠한가?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와 경기도 H시, S시, A시, N시에 소재한 중학교 6개교, 일반계고 4개교, 전문계고 4개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 1학년에서 고등학생 2학년까지 1,00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1,009명*

구분	빈도 (%)
성별	남학생 462 (45.8)
	여학생 547 (54.2)
계열	중학교 407 (40.3)
	일반계고 341 (33.8)
	전문계고 261 (25.9)
학년	중학1학년 154 (15.3)
	중학2학년 127 (12.6)
	중학3학년 126 (12.5)
	고등학교1학년 325 (32.2)
	고등학교 2학년 277 (27.5)
경제수준	아주 못산다 20 (2.0)
	못사는 편 163 (16.2)
	보통 684 (67.8)
	잘사는 편 126 (12.5)
	아주 잘산다 16 (1.6)
부 학력	초졸 40 (4.0)
	중졸 72 (7.3)
	고졸 445 (45.4)
	대졸 320 (32.7)
	대학원졸 103 (10.5)
모 학력	초졸 41 (4.2)
	중졸 93 (9.5)
	고졸 558 (57.2)
	대졸 231 (23.7)
	대학원졸 52 (5.3)
부모 결혼상태	결혼 865 (85.7)
	별거 33 (3.3)
	이혼 111 (11.0)

주. * 결측치로 사례합계가 동일하지 않음

2. 측정도구

1) 청소년의 비행척도

청소년의 비행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준호와 김순형(1995), 김희화와 김경연(2000)의 비행척도를 참조하여 총 17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본 척도의 하위영역은 지위비행 5문항, 성비행 4문항, 도피비행 3문항, 폭력비행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척도는 Likert 형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전혀 없다'는 1점, '1~2번 있다'는 2점, '3~4번 있다'는 3점, '5~6번 있다'는 4점, '7번 이상 있다'는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비행경험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계수는 하위척도의 Cronbach's Alpha .65~.78이고 전체 비행 척도 신뢰도계수는 .88 이었다.

2) 가족구조 척도

부모의 결혼상태는 결혼, 사별, 별거, 이혼으로 구분하여 선택하도록 하였고 분석 시 사별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표본만 포함하였다. 가정경제수준은 청소년이 지각한 주관적 경제수준으로 '아주 못산다'에서 '못사는 편이다', '보통이다', '잘 사는 편이다', '아주 잘 산다'의 5점 리커트척도이다.

3) 청소년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척도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 Barnes & Olson(1982)의 PACI(Parent - 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중 청소년 자녀용 설문지 (Adolescent Form)를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척도 20문항과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척도 20문항 총 4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척도의 신뢰도계수는 부-자녀간 의사소통척도가 Cronbach's Alpha 값이 .90이고 모-자녀간 의사소통척도 신뢰도계수는 .93이었다. 긍정적 의사소통 정도와 부정적 의사소통 정도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었고, 분석시 부정적 정도를 역코딩하여 긍정적 정도 점수와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의사소통 정도가 높게 되어있다.

4) 청소년의 학업문제 척도

공부열심정도, 자신의 공부 잘하는 정도, 자신의 성적만족도, 최근의 자신의 성적평균점수, 공부 스트레스정도의 5개 문항을 연구자가 작성하였고 각 문항은 5점 리커트척도로 되어있다. 학업문제 척도의 신뢰도계수는 Cronbach's Alpha .89이었다. 분석 시 5개 문항 점수의 평균값을 산출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부진하고 학업에 어려움을 많음을 의미한다.

5) 청소년의 친구관계 척도

김준호와 김은경(1995), 노성호(2006)의 척도를 참고로 하여 다음 6개 문항의 리커트 척도를 작성하였다. 이 중 ① 학교에서 근신, 정학, 퇴학 등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친구 수, ② 1년 동안 술마신 적이 있는 친구 수, ③ 1년 동안 담배 피운 적이 있는 친구 수, ④ 1년 동안 무단결석한 적이 있는 친구 수 문항 등 4개 문항은 각각 '전혀 없다', '1명', '2명', '3명', '4명 이상'으로 범주화하고, 분석 시 '전혀 없다'는 1점부터 '3명'은 3점, '4명 이상'은 5점까지 차례로 코딩하였다. ⑤ 친구 중에서 학교에 불만이 많은 친구비율 문항은 '거의 없음', '1/4이내', '반절 정도', '3/4정도', '80%이상'으로 범주화하였고, 분석 시 '거의 없음' 1점부터 '80% 이상' 5점으로 차례로 코딩하였다. ⑥ 일탈친구들과의 접촉정도 문항은 '전혀 어울리지 않음', '거의 어울리지 않음', '가끔 어울림', '자주 어울림', '늘 가깝게 지냄'으로 범주화하고, 분석 시 '전혀 어울리지 않음' 1점부터 '늘 가깝게 지냄' 5점까지 차례로 코딩하여 6개 문항의 각각 점수를 합한 점수의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비행친구가 많고 가까이 접촉함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계수는 Cronbach's Alpha .80이었다.

6) 청소년의 인구학적 변인 척도

성별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여 선택하도록 하였다. 학년은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와 고등학교1학년에서 2학년까지의 범위로 되어있고, 분석 시 중학교 1학년은 1점, 2학년은 2점, 3학년은 3점, 고등학교 1학년은 4점, 2학년은 5점으로 코딩하여 연령 변인화하여 분석하였다. 학교계열은 일반계고등학교, 전문계고등학교, 중학교로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3. 조사절차

1) 예비조사

측정도구 문항의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 소재 남녀 공학 중학교 1개교,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1개교 2학년 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2009년 4월 1일~3일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중 분석가능한 연구대상은 122명이었다. 예비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질문지를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2) 본 조사

본 조사는 2009년 4월 13일에서 30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학교는 서울시와 경기도 소재의 중학교 6개교와 고등학교 8개교에서 이루어졌으며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

지에서 1개 ~2개 학급을 선정하였다. 조사방법은 연구자가 직접 해당 중·고등학교 담임교사를 방문하여 질문지 기재 방식 등을 설명한 후 교사의 감독과 지시 하에 조사를 실시하고 질문지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4. 자료처리 및 분석

수집한 자료는 배부된 총1,300부의 질문지중 1,286부를 회수하여 회수율은 98.9 %였다. 회수된 자료 중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부실기재 된 자료를 제외하고, 또한 부모의 결혼상태 중 사별한 케이스를 제외한 1,009부(77.6%)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SPSS Win 13.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으며, 통계방법으로는 연구대상 청소년과 부모의 일반적 특성을 파

악하기 위한 기술통계와, 집단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독립표본 *t* 검증, 일원변량분석(ANOVA),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고, 다음 관련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Pe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 관련변인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중다회귀분석 및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청소년 비행의 관련변인 간의 관계

비행 관련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차이검증과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청소년의 성별, 학교계열별, 부모의 결혼상태에 따른 부모와의 의사소통, 학업문제, 친구관계, 비행의 차이

구분	부와 의사소통	모와 의사소통	학업 문제	친구 관계	지위 비행	성 비행	도피 비행	폭력 비행	전체 비행	
	M	M	M	M	M	M	M	M	M	
성별	남	3.08	3.40	3.47	2.02	1.98	1.95	1.18	1.73	1.76
	여	3.13	3.55	3.34	1.99	1.59	1.42	1.15	1.31	1.38
	<i>t</i> 값	-1.09	-3.91***	2.51*	.79	7.86***	10.32***	.71	10.73***	11.20***
학교 계열별	중학교	3.21 _a	3.50	3.21 _a	1.99	1.54 _a	1.41 _a	1.09 _a	1.45	1.40 _a
	일반계 고교	3.09 _b	3.52	3.50 _b	1.98	1.77 _b	1.82 _b	1.12 _a	1.53	1.59 _b
	전문계 고교	2.97 _b	3.41	3.57 _b	2.06	2.13 _c	1.84 _b	1.33 _b	1.54	1.74 _c
	<i>F</i> 값	10.99***	2.44	18.15***	1.63	48.43***	30.65***	22.33***	2.30	34.62***
부모 결혼 상태	결혼	3.12	3.50	3.35	1.99	1.71	1.62	1.14	1.48	1.52
	별거, 이혼	2.98	3.36	3.72	2.12	2.13	1.94	1.33	1.59	1.78
	<i>t</i> 값	2.64**	2.55*	-5.23***	-2.31*	-6.08***	-4.19***	-4.39***	-1.91	-4.43***

주. 같은 아래 첨자가 나타내는 평균은 scheffe 검증결과 *p* < .05에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함.

* *p* < .05. ***p* < .01. ****p* < .001.

〈표 3〉 청소년의 비행과 관련변인간의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학년	1.00										
2.가정경제 수준	.141**	1.00									
3.부와의 의사소통	-.131**	.168***	1.00								
4.모와의 의사소통	-.028	.072*	.387***	1.00							
5.학업문제	.160**	-.216***	-.200**	-.148**	1.00						
6.친구관계	.015	-.159**	-.229***	-.137**	.162**	1.00					
7.지위비행	.242***	-.068*	-.184**	-.162**	.274***	.081*	1.00				
8.성비행	.240***	-.078*	-.143**	-.164**	.210**	.024	.596***	1.00			
9.도피비행	.130**	-.048	-.136**	-.166**	.206**	.080*	.460***	.334***	1.00		
10.폭력비행	.072*	-.036	-.094**	-.151**	.126**	.068*	.395***	.493***	.251***	1.00	
11.전체비행	.238***	-.076*	-.177**	-.202**	.267***	.092*	.849***	.837***	.558***	.726***	1.00
<i>M</i>	3.44	2.96	3.106	3.484	3.400	2.086	1.769	1.662	1.164	1.500	1.554
<i>SD</i>	1.402	.654	.644	.606	.848	.603	.787	.846	.489	.625	.543

p* < .05. *p* < .01. ****p* < .001.

〈표 2〉에서와 같이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은 학교계열, 부모의 결혼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고,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은 성별, 부모의 결혼상태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전문계, 이혼별거가족, 남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적었다. 이는 선행연구(고선주 외, 2004; 김수진, 2001)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학업문제는 성별, 학교계열, 부모의 결혼상태에 따라, 그리고 친구관계는 부모의 결혼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남학생, 전문계, 이혼별거가족의 경우에 학업문제나 비행친구관계가 많았다. 이는 선행연구결과(오승환, 2006; 홍순혜, 2004)와 일치되는 것이다. 한편 성별, 학교계열별로 친구관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비행유형 중 지위비행, 성비행, 폭력비행 및 전체 비행의 경우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서 남학생의 경우 비행경험이 많았다. 또한 학교계열이 전문계, 일반계고등학생, 중학생의 차례로, 그리고 부모가 이혼이나 별거상태인 경우에 지위비행, 성비행, 도피비행 및 전체 비행 경험의 유의하게 많았다. 이 결과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오승환, 2000, 2006; 유안진 외, 2005; 이에제, 2000; 홍순혜, 2004; Demuth et al., 2004)와 일치한다.

청소년의 학년, 가정경제수준, 부모와의 의사소통, 학업문제, 친구관계가 비행정도와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적률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이 학년, 학업문제, 친구관계는 대부분의 비행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가정경제수준,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대부분의 비행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2. 청소년 비행의 인과모형 회귀분석 결과

관련변인의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변인간의 관련성을

조사하기 위한 차이검증과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 학년, 학교계열 등의 인구학적 변인이 가족구조(부모의 결혼상태, 가정경제수준), 부모와의 의사소통, 학업문제, 친구관계, 비행과 유의하게 관련되어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이들 변인 중 명목척도에 해당되는 성별, 학교계열과 부모의 결혼상태변인은 가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하여 성별에서 남학생은 1, 여학생은 0으로, 학교계열에서 전문계 고교는 1, 나머지 일반계 고교나 중학생은 0으로 적용하였고 부모의 결혼상태 변인에서 결혼유지는 1, 별거나 이혼은 0으로 적용하였다.

회귀가정위반 여부를 진단한 결과 독립변인 간 상관이 .40미만으로 나타났고, 각 변인의 VIF(분산확대인자) 값이 1.03~1.29 범위로 다중공선성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Durbin-Watson계수 산출결과 1.90~2.0 범위로 모두 2에 근접하고 있어 잔차 간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서 본 자료의 회귀가정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가설적 인과모형에 따라 1단계로 청소년의 인구학적 변인(성별, 학년, 학교계열)과 가족구조(부모의 결혼상태, 가정경제수준),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학업문제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 2단계로 이에 학업문제를 독립변인에 추가하여 친구관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3단계로 친구관계를 독립변인에 추가하여 네가지 비행유형과 전체 비행을 종속변인으로 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1단계 회귀분석결과 학업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정경제수준($\beta = -.137$), 부와의 의사소통($\beta = -.134$), 학년($\beta = .118$), 부모의 결혼상태($\beta = -.099$), 성별($\beta = .068$)의 순이었

〈표 4〉 청소년 비행의 인과모형 회귀분석 결과

변인	학업문제	친구관계	지위비행	성 비행	도피비행	폭력비행	전체비행
	β	β	β	β	β	β	β
성별	.068*	.003	.195***	.289***	-.028	.316***	.299***
학교계열	-.015	.018	.162***	-.031	.160***	-.027	.071*
학년	.118***	.048	.102**	.180***	.026	.029	.125***
부모결혼상태	-.099**	-.001	-.100***	-.078*	-.054	-.048	-.091**
가정경제수준	-.137***	-.082*	-.037	-.015	.035	-.022	.009
부와의의사소통	-.134***	-.170***	-.105***	-.067*	-.047	-.037	-.084**
모와의의사소통	-.065	-.055	-.073*	-.084*	-.131***	-.101**	-.113***
학업문제		.104**	.216***	.132***	.177***	.072*	.192***
친구관계			.117***	.035	.087**	.061*	.099***
상수	3.633	3.225	.864	1.352	.941	1.469	1.129
Adj R ²	.096	.066	.222	.188	.101	.132	.248
F 값	15.131***	9.153***	30.080***	24.520***	12.467***	16.412***	34.217***
D-W계수	1.902	2.004	1.909	1.896	1.968	1.913	1.940

* $p < .05$, ** $p < .01$, *** $p < .001$.

으며, 이 변인들의 설명력은 9.6%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은 가정경제수준을 못사는 것으로 지각할수록, 부와의 의사소통이 적을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부모가 이혼이나 별거상태인 경우, 남학생인 경우에 학업성적이 낮고 학업문제를 많이 경험하였다. 한편 학교계열, 모와의 의사소통은 유의한 영향력이 없었다.

2단계 회귀분석결과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와의 의사소통($\beta = -.170$), 학업문제($\beta = .104$), 가정경제수준($\beta = -.082$)이고 변인들의 설명력은 6.6%이었다. 즉 청소년들은 부와의 의사소통이 적을수록, 학업문제를 많이 겪을수록, 가정경제수준을 못 사는 것으로 지각할수록 비행친구와 접촉을 많이 하였다. 한편 성별, 학교계열, 학년, 부모결혼상태, 모와의 의사소통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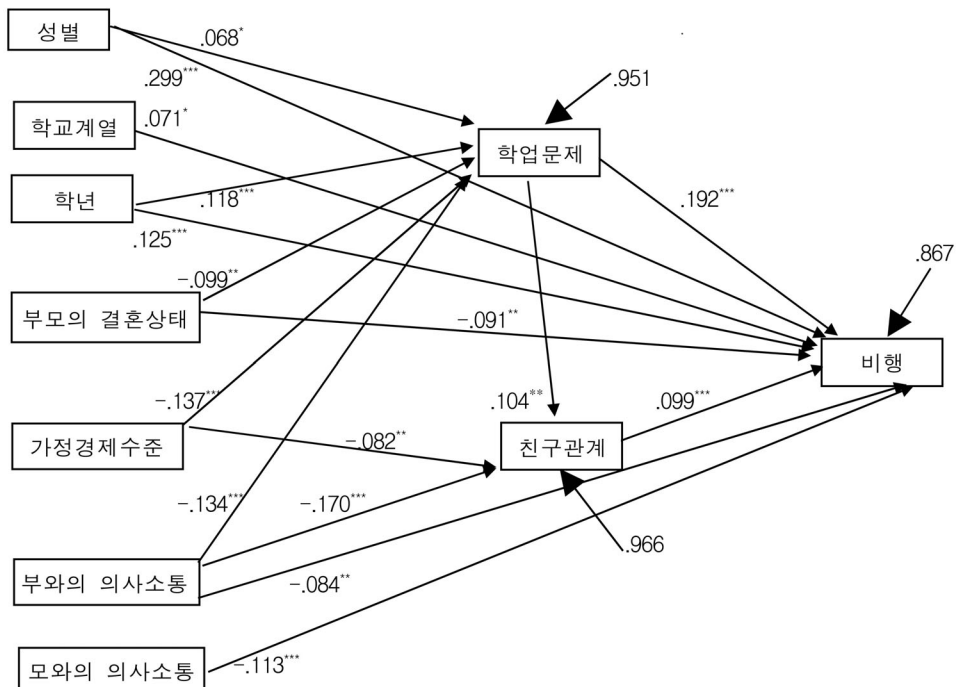
3단계 회귀분석결과 비행유형 각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보면 지위비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업문제($\beta = .216$)이고 다음으로 성별($\beta = .195$), 학교계열($\beta = .162$), 친구관계($\beta = .117$), 부와의 의사소통($\beta = -.105$), 학년($\beta = .102$), 부모결혼상태($\beta = -.100$), 모와의 의사소통($\beta = -.073$)의 순이며 이 변인들의 설명력은 22.2%로 나타났다. 즉 학업문제를 많이 겪을수록, 남학생의 경우, 학교계열이 전문계인 경우,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많을수록, 부와의 의사소통이 적을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부모가 이혼이나 별거상태인 경우, 모와의 의사소통이 적을수록 지위비행이 증가하였다.

한편 가정경제수준은 유의한 영향력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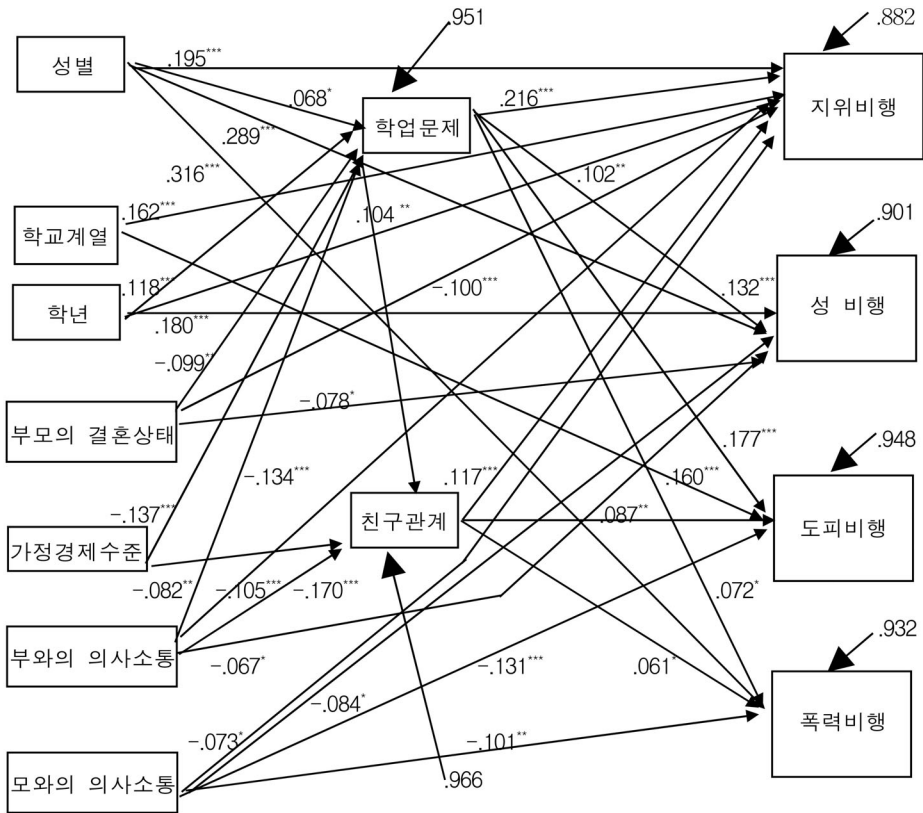
성비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beta = .289$)이고, 다음 학년($\beta = .180$), 학업문제($\beta = .132$), 모와의 의사소통($\beta = -.084$), 부모결혼상태($\beta = -.078$), 부와의 의사소통($\beta = -.067$)의 순이었고 이 변인들의 설명력은 18.8%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의 경우, 학년이 높을수록, 학업문제를 많이 겪을수록, 모와의 의사소통이 적을수록, 부모가 이혼이나 별거상태인 경우, 부와의 의사소통이 적을수록 성비행이 증가하였다. 한편 학교계열, 가정경제수준, 친구관계 등은 유의한 영향력이 없었다.

도피비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업문제($\beta = .177$)이고, 다음 학교계열($\beta = .160$), 모와의 의사소통($\beta = -.131$), 친구관계($\beta = .087$)의 순이었고, 이 변인들의 설명력은 10.1%로 나타났다. 즉 학업문제를 많이 겪을수록, 학교계열이 전문계인 경우, 모와의 의사소통이 적을수록, 비행친구와 접촉이 많을수록 도피비행이 증가하였다. 한편 성별, 학년, 부모결혼상태, 가정경제수준, 부와 의사소통은 유의한 영향력이 없었다.

폭력비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beta = .316$)이고, 다음 모와의 의사소통($\beta = -.101$), 학업문제($\beta = .072$), 친구관계($\beta = .061$)의 순이었고 변인들의 설명력은 13.2%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의 경우, 모와의 의사소통이 적을수록, 학업문제를 많이 겪을수록, 비행친구와 접촉이 많을수록 폭



(그림 2)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관련변인의 경로분석 결과



〈그림 3〉 청소년의 비행유형에 대한 관련변인의 경로분석 결과

력비행이 증가하였다. 한편 학교계열, 학년, 부모결혼상태, 가정경제수준, 부와의 의사소통은 유의한 영향력이 없었다.

전체비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beta = .299$)이고, 다음 학업문제($\beta = .192$), 학년($\beta = .125$), 모와의 의사소통($\beta = -.113$), 친구관계($\beta = .099$), 부모결혼상태($\beta = -.091$), 부와의 의사소통($\beta = -.084$), 학교계열($\beta = .071$)의 순이었으며 이 변인들의 설명력은 24.8%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의 경우, 학업문제를 많이 겪을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모와의 의사소통이 적을수록, 비행친구와 접촉이 많을수록, 부모가 이혼이나 별거상태인 경우, 부와의 의사소통이 적을수록, 학교계열이 전문계인 경우에 비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정경제수준은 유의한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었다.

3. 청소년 비행에 대한 관련변인의 인과모형 분석결과

1) 청소년 비행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경로분석결과

이상의 회귀분석결과 전체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표준화 회귀계수가 $p < .05$ 이상 유의한 변인의 경로계수를 확인하고 가설적 인과모형을 토대로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

과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먼저 제 변인 → 학업문제 → 전체비행에 대한 경로를 보면 청소년의 성별, 학년, 부모의 결혼상태, 가정경제수준, 부와의 의사소통에서 학업문제로 가는 각각의 경로($\beta = .068$; $\beta = .118$; $\beta = -.099$; $\beta = -.137$; $\beta = -.134$)와 학업문제에서 비행으로 가는 경로($\beta = .192$)가 유의미하였다.

제 변인 → 친구관계 → 전체비행에 대한 경로를 보면 가정경제수준, 부와의 의사소통에서 친구관계로 가는 각각의 경로($\beta = -.082$; $\beta = -.170$)와 학업문제에서 친구관계로 가는 경로($\beta = .104$), 친구관계에서 비행으로 가는 경로($\beta = .099$)가 유의미하였다. 학업문제와 친구관계를 제외한 제 변인의 전체 비행에 대한 직접적 경로를 보면 성별, 학교계열, 학년, 부모의 결혼상태, 부와의 의사소통, 모와의 의사소통에서 비행으로 가는 각각의 직접적 경로($\beta = .299$; $\beta = .071$; $\beta = .125$; $\beta = -.091$; $\beta = -.084$; $\beta = -.113$)가 유의미하여 이 변인들의 비행에 대한 직접효과를 보여주었다. 반면 가정경제수준은 학업문제, 친구관계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만을 미쳤다. 네 가지 비행유형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는 〈그림 3〉에 제시하였다.

〈표 5〉 청소년 비행에 대한 관련변인의 인과효과

변인	지위비행			성비행			도피비행			폭력비행			전체비행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성별	.195	.016	.211	.289	.009	.298	-	.013	.013	.316	.005	.321	.299	.014	.313
학교계열	.162	-	.162	-	-	-	.160	-	.160	-	-	-	.071	-	.071
학년	.102	.026	.128	.180	.016	.196	-	.022	.022	-	.010	.010	.125	.024	.149
부모결혼상태	-.100	-.022	-.122	-.078	-.013	-.091	-	-.019	-.019	-	-.026	-.026	-.091	-.020	-.111
가정경제수준	-	-.043	-.043	-	-.018	-.018	-	-.034	-.034	-	-.050	-.050	-	-.037	-.037
부와의사소통	-.105	-.009	-.114	-.067	-.018	-.085	-	-.008	-.008	-	-.003	-.003	-.084	-.008	-.092
모와의사소통	-.073	-	-.073	-.084	-	-.084	-.131	-	-.131	-.101	-	-.101	-.113	-	-.113
학업문제	.216	.012	.228	.132	-	.132	.177	.009	.186	.072	.006	.078	.192	.010	.202
친구관계	.117	-	.117	-	-	-	.087	-	.087	.061	-	.061	.099	-	.099

주. ■ 1위 □ 2위 □ 3위

2) 청소년 비행에 대한 관련변인의 인과효과

위의 인과모형에서 각각의 독립변인들이 비행유형과 전체비행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에 따른 인과적 효과를 구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비행유형별 및 전체비행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인과효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지위비행에 총 인과효과가 가장 큰 변인이 학업문제이고 (.228), 다음 성별(.211), 학교계열(.162), 학년(.128), 부모의 결혼상태(-.122), 친구관계(-.117), 부와의 의사소통(-.114), 모와의 의사소통(-.073)의 순이고 가정경제수준(-.043)은 간접적인 효과만 있었다.

성비행에 총 인과효과가 가장 큰 변인은 성별(.298)이었다. 다음 학년(.196), 학업문제(.132), 부모의 결혼상태(-.091), 부와의 의사소통(-.085), 모와의 의사소통(-.084)의 순이고 가정경제수준(-.018)은 간접적인 효과만 있었다. 학교계열과 친구관계는 효과가 없었다.

도피비행에 총 인과효과가 가장 큰 변인은 학업문제(.186)이고, 다음 학교계열(.160), 모와의 의사소통(-.131), 친구관계(.087)의 순이며, 가정경제수준(-.034), 학년(.022), 부모의 결혼상태(-.019), 성별(.013), 부와의 의사소통(-.008)은 간접적 효과만 있었다.

폭력비행에 총 인과효과가 가장 큰 변인은 성별(.321)이었

다. 다음 모와의 의사소통(-.101), 학업문제(.078), 친구관계(.061)의 순이고, 가정경제수준(-.050), 부모의 결혼상태(-.026), 학년(.010), 부와의 의사소통(-.003)은 간접적 효과만 있었다. 한편 학교계열은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다.

전체 비행에 대한 총 인과효과가 큰 변인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성별이 .313으로 가장 크고, 그중 학업문제, 친구관계를 통한 간접효과는 .014이었다. 그 다음 학업문제는 총 인과효과가 .202이고 친구관계를 통한 간접효과는 .010이었다. 학년은 총 인과효과가 .148이고 이중 학업문제, 친구관계를 통한 간접효과는 .024이었다. 모와의 의사소통은 직접적 효과만 -.113이며, 부모의 결혼상태의 총 인과효과는 -.111이며 이중 학업문제, 친구관계를 통한 간접효과가 -.020이었다. 부와의 의사소통의 총 인과효과는 -.092이고 이중 학업문제와 친구관계를 통한 간접효과가 -.008이었다. 학교계열은 직접효과만 있으며, 가정경제수준은 학업문제와 친구관계를 통한 간접효과만 보였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인구학적 변인(성별, 학년, 학교계열)과 가족구조(부

모의 결혼상태, 가정경제수준), 부모와의 의사소통, 학업문제와, 친구관계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 이들 변인들의 비행에 대하여 가지는 직접적, 간접적 영향력과 인과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와 연관시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로분석 결과 인구학적 변인의 영향을 보면 먼저 성별변인(남학생)이 도피비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행유형과 전체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고 강력한 예측요인이 되는 것은 대부분의 선행연구(남현미, 옥선화, 2001; 신혜섭, 2005; 이동원, 2001, 2005 등)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유안진 외(2005)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아 비행 측정도구와 연구대상의 차이 때문인지 더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학년 변인의 경우 지위비행, 성비행 및 전체 비행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청소년의 연령이 많을수록 비행이 증가한다는 대부분의 선행연구 결과(곽금주, 문은영, 1993; 김경식, 이현철, 2006; 김현숙, 1998; 오승환, 2006; 이경남, 2002)와 일치한다. 또한 학년변인이 학업문제, 친구관계를 매개로 비행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업성취에 대한 부담감과 학업문제를 많이 겪는 결과 이탈친구와 접촉이 많아지게 되면서 비행이 증가한다는 통설을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계열(전문계) 변인이 지위비행, 도피비행 및 전체 비행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전문계 학생의 경우 경비행과 중비행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선행연구(김경식, 이현철, 2006; 신혜섭, 2005; 오승환, 2006; 이동원, 2001)와 맥락이 같은 결과이다.

둘째, 가족구조 변인 중 부모의 결혼상태(이혼, 별거)가 지위비행과 성비행 및 전체 비행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선행연구(오승환, 2000, 2006; 유안진 외, 2005; 이애제, 2000; 홍순혜, 2004; Demuth et al., 2004; Farrington, 1996)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부모의 결혼상태가 학업문제, 친구관계를 통하여 비행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이혼이나 별거가족에서 청소년에게 경제적, 정서적으로 결핍환경이 되기 쉽고 환경변화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하는 결과 학업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그에 따라 비행이 증가한다는 주장(Amato, 1993; Hetherington & Stanley-Hagan, 1999)을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또한 가정경제수준이 다른 변인을 통제한 상황에서 모든 비행유형과 전체 비행에 직접적인 효과는 없고, 학업문제, 친구관계를 통한 간접적인 효과만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경제수준이 낮을수록 학업문제가 증가하면서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많아져서 비행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선행연구(고제욱, 2009; 김경식, 이현철, 2005)와 일치하는 결과

로서 비행에 관한 아노미이론과 차별접촉이론을 지지하는 것이다.

셋째, 부와의 의사소통정도가 지위비행과 성비행 및 전체 비행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치고, 모와의 의사소통정도가 모든 비행유형 및 전체 비행에 직접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비행에 관한 사회유대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부모 중 특히 모와의 의사소통이 부와의 의사소통 보다 비행에 대한 인과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결과는 선행연구(고제욱, 2009; 남현미, 옥선화, 2001)와 일치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비행예방에 부모 중 특히 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하겠다. 또한 부와의 의사소통은 학업문제, 친구관계를 통하여 비행에 간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쳐서 부와의 의사소통이 적을수록 학업문제를 많이 겪게 됨에 따라 비행친구와 접촉이 많아지면서 비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선행연구(김준호, 김은경, 1995; 남현미, 옥선화, 2001)와 일치되는 것으로 청소년들이 아버지와 의사소통이 적을수록 친구관계에 집착하고 이탈친구들의 유혹이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비행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을 확인하는 것이다.

넷째, 학업문제는 다른 변인을 통제한 상황에서 모든 비행유형과 전체 비행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선행연구(김준호, 노성호, 1989; 김준호 외, 2009; 이동원, 2005)와 일치되는 것이다. 또한 학업문제는 친구관계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비행에 관한 아노미이론과 차별접촉이론이 함께 지지되었다.

다섯째, 친구관계는 성비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행유형과 전체비행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쳐서 선행연구(김경식, 이현철, 2006; 남현미, 옥선화, 2001; 노성호, 2005; 박영신, 김의철, 2004; 이경남, 2003)와 일치하며 이로써 비행에 관한 차별접촉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라 하겠다. 한편 이 결과는 다른 선행연구(이성식, 1999)와는 불일치하는데 이는 척도와 연구대상의 차이가 작용할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여섯째, 총 인과효과에서 비행 관련 이론의 설명력을 고려할 때 학업문제 변인이 대부분의 비행유형과 전체비행에 대한 인과효과가 상당히 크고, 부모의 결혼상태 변인이 지위비행과 성비행, 전체 비행에 직접적 효과와 함께 학업문제, 친구관계를 통한 간접적인 인과효과를 가지며, 가정경제수준 변인이 학업문제, 친구관계를 통한 간접효과를 가지는 결과들은 아노미이론이 광범위하게 지지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사회유대이론 변인 중 모와의 의사소통 정도의 도피비행과 폭력비행, 전체 비행에 대한 인과효과가 상당히 큰데 비해 부와의 의사소통 정도의 지위비행과 성비행에 대한 인과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처

음 밝혀진 것이다.

그리고 차별적특이론 변인인 친구관계의 인과효과가 아노미이론에 속하는 학업문제, 부모의 결혼상태나 사회유대이론에 속하는 모와의 의사소통 등의 인과효과보다 적게 나타난 것도 본 연구에서 새롭게 밝혀진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볼 때 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한 상황에서 청소년 비행에 대한 아노미이론, 사회유대이론, 차별적특이론이 모두 지지되었음을 알 수 있고, 비행유형별로 여러 변인들의 인과효과가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전제로 해석되어야 한다.

첫째, 본 연구의 표집대상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서 전반적으로 비행경험이 낮고 특히 도피비행과 폭력비행이 낮게 나타나 인과모형 분석에 제한점으로 작용한다. 앞으로 비행청소년집단에 대한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측정도구가 청소년의 자기보고식으로 이루어져서 주관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타당한 방법이지만 부모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제공자를 활용하여 본 연구결과와 비교하는 방법도 시도해볼 수 있다. 그리고 양적 조사만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인과관계 정보를 파악하는데 제한점으로 작용한 점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요인이나 부모의 감독 요인과 통제성, 충동성, 자아존중감 같은 개인적 특성을 포함하지 못하였고 관련변인의 비행에 대한 설명력이 높지 못하므로 앞으로 비행청소년 집단이나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비행유형별 여러 변인들의 영향력과 직·간접적 인과효과를 밝히는 후속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로 인과관계의 추론에 제한점이 있으므로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한 종단적 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가족구조(부모의 결혼상태, 가정경제수준)와 부모와의 의사소통, 학업문제, 친구관계 및 인구학적 변인이 중·고등학생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규명하여 인과모형을 제시하고 비행 관련이론을 검증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그리고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 많이 연구되는 학업요인과 친구요인, 성별과 학년 등의 요인에 부모의 결혼상태와 가정경제수준 등의 가족구조와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도 변인을 추가하여 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하고 비행유형별로 여러 변인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파악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비행예방과 관련하여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하는 가족의 청소년,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전문계학생, 남자고등학생, 학업부진이나 학업흥미가 적은 학생, 비행친구와 어울리는 학생들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일이 필요하고, 이들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부진 해소나 학업성취동기 촉진 프로그램, 자아성장과 건전한 교우관계 프로그램 등이 실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참고문헌

- 강상진, 전민정, 장지현(2005).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문제행동 비교분석 : 3수준 다층분석. **제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125-153.
- 고선주, 이은희, 나영주, 황진숙, 박숙희(2004). 중·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개인, 가족, 학교, 인터넷 요인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6), 13-26.
- 고정자(2003). 청소년의 개인변인과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변인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7), 121-143.
- 고정자(2005). 부모의 감독정도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2), 1-17.
- 고제욱(2009). 가정, 학교, 친구관계가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고등학교 남학생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곽금주, 문은영(1993).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2), 29-41.
- 김경식, 이현철(2006). 청소년의 비행을 낳는 요인. **제3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601-622.
- 김경화(1989).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선미(1995). 가족관계와 청소년비행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수진(200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희, 김운주, 박경옥, 이희숙, 김창기(2000).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의 일탈행동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6), 149-169.
- 김윤희(1989). 부부관계, 부모-자녀 의사소통, 가족기능과 청소년 자녀의 비행과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준호(1999).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

- 연구원.
- 김준호, 김순형(1995). **가정환경과 청소년비행**.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김은경(1995). **여자청소년의 비행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노성호(1989).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노성호, 이성식, 곽대경, 박정선, 이동원 외(2009). **청소년비행론**. 서울: 청록출판사.
- 김준호, 이동원(1996). **보호관찰제도의 실제 및 개선방안**.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현숙(1998). 청소년의 건강행위와 비행의 영향요인에 관한 모형구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희화, 김정연(2000). 청소년의 비행과 자아존중감간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종단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5), 15-24.
- 남현미, 옥선화(2001).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 통제력 및 친구 특성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7), 37-58.
- 노성호(2005). 청소년의 비행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검증. **제2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583-605.
- 민하영(1992). 청소년의 비행 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3(1), 112-124.
- 박영신, 김의철(2004). 청소년의 인간관계와 일탈행동: 부모 자녀관계, 친구관계, 교사 학생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 87-115.
- 방희정, 조아미(2002). 가족기능과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행동간의 관계. **한국발달심리학회 2002 춘계 심포지움 자료집**, 77-110.
- 손인영(2007). 중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과 청소년 우울 및 비행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혜섭(2005). 가정폭력 요인과 가족구조 요인이 남녀 학생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17(2), 63-88.
- 안병주(2002). 청소년의 심리적, 사회적 조절변인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어유경(2005). 취약한 가족환경이 청소년의 우울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개인적 특성의 보호기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승환(2000). 결손가족 청소년의 적응결정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오승환(2006). 가족해체가 청소년의 적응과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제3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541-566.
- 유성경, 이소래(2001). 청소년 비행수준에 따른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187-205.
- 유성경, 이소래, 송수민(2000). **청소년 비행예방 및 개입전략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유순화(2003). 사회유대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의 통합에 의한 청소년 비행예측. **청소년학 연구**, 10(4), 289-315.
- 유안진, 이점숙, 서주현(2005). 가족구조에 따른 청소년 비행. **대한가정학회지**, 43(10), 91-102.
- 이경남(2002). 청소년의 애착, 자아존중감 및 충동통제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8), 191-206.
- 이경남(2003). 청소년의 애착과 우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2(1), 1-13.
- 이경남, 하연미(2004). 청소년의 인터넷 관련 비행과 관련 변인간의 경로분석모델. **대한가정학회지**, 42(5), 127-143.
- 이경주, 신효식(1997).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원 및 지지유형에 따른 부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15-26.
- 이동원(2001). 청소년 비행의 주요 요인간 상호작용 효과. **교정연구** 13, 363-392.
- 이동원(2005).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비행-자아개념의 재차원과 비행유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공인행정학회**, 19, 357-383.
- 이삼연(2002). 이혼가정 청소년자녀의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0, 37-64.
- 이상문(2005). 성별에 따른 일탈행동 성장경로의 차이-미국 청소년패널조사(NYS)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9(4), 162-197.
- 이성식(1999). 비행친구와 비행과의 관계. **형사정책연구**, 10(2), 193-221.
- 이성식(2002). 가정, 비행친구, 비행의 상호인과관계. **형사정책연구**, 13(1), 67-87.
- 이성식, 전신현(2009). 학업성과와 청소년 비행: 청소년패널 자료를 통한 비행 이론들의 검증. **청소년연구**, 20(1), 91-111.
- 이에제(2000). 편부모가족기능요인에 따른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숙, 김정옥(200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2), 133-139.

- 이은아, 정혜정(2000). 가정환경변인에 따른 청소년의 비행 연구. **한국가정과학회지**, 3(2), 1-12.
- 정문자, 송성자(2001). 보호처분을 받은 비행청소년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모형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9(12), 239-257.
- 정수경(2000). 중학생 비행에 미치는 생태학적 환경과 가족 기능의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8, 45-64.
- 정익중(2005). 성역할 고정관념과 청소년 비행의 성별차이. **한국청소년연구**, 16(1), 35-76.
- 정진경, 오경자, 문경주, 조아라(2005).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과 비행: 정서적 자율성과 행동적 자율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4), 755-770.
- 조미숙, 오선주(1999).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관계 변인과 청소년의 가족가치.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1), 67-89.
- 최규련(1996). 가족학적 관점에 본 청소년문제와 대책. **대한가정학회지**, 34(1), 147-160.
- 최규련(1998). 가족체계유형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청소년자녀의 심리적 복지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1), 120-142.
- 홍순혜(2004).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 양육부모의 경제수준 및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7, 151-171.
- Amato, P. R.(1993). Children's adjustment to divorce:Theories,hypotheses, and 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23-38.
- Collins, W., Maccoby, E., Steinberg, L., Hetherington, E., & Bornstein, M.(2000). Contemporary research on parenting. *American Psychologist*, 55(2), 218-232.
- Demuth, S., & Brown, S. L.(2004). Family structure, family processes and adolescent delinquency : The significance of parental absence versus parental gender?.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1, 120-136.
- Edelbrock, C. S.(1989). Self-reported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in a Community Sample of Adolescent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Kansas City.
- Farrington, D. P.(1996). The Explanation and Prevention of Youthful Offending. in *Delinquency and crime : Current theories*. edited by J. D. Hawkin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therington, E. M., & Stanley-Hagan, P.(1999). Divorce and the adjustment of children : A risk and resiliency perspective. *Th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0, 129-140.
- Paschall, M. J., Ennett, S. T., & Flewelling, R. L.(1996). Relationships among Family Characteristics and Violent Behavior by Black and White Male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5(2), 177-198.
- Rankin, J., & Wells, L. E.(1995). The preventive effects of the family on delinquency. In R.Berger(ed.). *The sociology of delinquency*. Chicago: Nelson-Hall.
- Smith, D. A., & Paternoster(1987). The gender gap in theories of deviance: Issues and evidenc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4,140-172.

접 수 일 : 2010년 3월 25일

심사시작일 : 2010년 4월 5일

게재확정일 : 2010년 6월 4일